

3. 부산일본전관거류지의 형성과 변화에서 나타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공학과 송혜영
지도교수 이한석

구한말 병자수호조약에 의하여 부산항이 개항된 1876년부터 1910년까지 34년간에 걸쳐 항도 부산에는 일본의 침략거점인 “일본전관거류지”가 존속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개항장이 된 부산항에는 건축의 변용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유입되어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대건축은 대개 1876년을 시점으로 1910년까지 “초기이식기”로 인식되는 “개화건축기”로 분류되고 있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건축활동은 대부분 대륙침략의 의도를 은밀하게 위장한 계산된 출발이었다. 유럽열강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시기에 이에 편승한 일본의 해외팽창정책을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바다를 건너와 부산에 유입되었고 이들의 활동으로 일본풍의 건축물이 건립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새로운 형식의 건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초기 부산일본거류지에 유입된 건축물은 거류지 경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공공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입된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거류지의 팽창이 시도되어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다수 들어섰다. 당시 가장 많이 나타난 건축물로는 상업시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부산항을 통한 경제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거류지에서의 건축활동의 주체는 크게 공공시설물의 설립에 관여하였던 관공서와 민생관련 생활시설물의 설립에 관여했던 거류민 자체기구인 거류민단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거류민단의 건축활동에는 교육시설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시설과 함께 전래되는 서구식 교육시설의 설립과정은 부산일본거류지에서는 거류민단의 건축활동으로 인해 저조하였다. 부산일본거류지에는 다양한 업종의 직업과 함께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며 그 중 연극장, 음식점, 요리점과 같은 까다로운 건축규정이 적용되는 취체상 영업을 위한 건축활동도 활발하였다.

본격적인 일본의 대륙침략이 진행될 무렵, 팽창하는 거류지의 새로운 부지로서 기존 거류지의 동쪽 해안이 매립되어 새로운 시가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조성된 해안 매립지에 당시로는 획기적인 규모와 외관을 갖춘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지니는 부산역, 부산세관, 부산우편국이 건립되었다.

비록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일본이 주체가 된 건축물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잔존할 여지조차 얻지 못해 현재까지 남겨진 건축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부의 사진들과 문헌자료들을 통해서 추측해야 하는 ‘기록부재’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곤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부산일본거류지의 근대건축에 대한 건축적인 세부표현 특히 지도제작과 건축물 내부구조에 대한 내용은 당시 ‘이사청 회계사무장정’에서 일부 찾을 수 있었다.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일어난 일련의 건축활동과 변화과정은 거류지 부근이 부산의 시가지 구성과 형태를 이루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으며, 건축활동이 있었던 부지들을 조사·연구한 결과 현재도 그 부지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서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